

■ 르포 / 하루 4만명 몰려오는 추석연휴, 제주공항에서는...

“관문이 뚫리면 제주는...” 초긴장 모드

코로나19 확산 철통 방어 카메라로 이용객 열 체크 선별진료소 측 “입도객 몰릴 때 긴장감 최고조” 도내 방역인력 비상근무



추석연휴를 맞아 제주에는 귀성객과 관광객 등 하루 4만명가량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철통방어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입도객으로 복귀하고 있는 28일 제주공항 대합실 모습. 강희민기자

닷새간 추석 명절 연휴에 하루 4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 여느 해 같았으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명절 특수를 기대하겠지만 코로나19가 덮친 올해는 제주의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병원,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방역 최일선은 휴식은 고사하고 비상근무를 이어가며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28일 제주국제공항엔 제주를 찾는 귀성객,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도착 대합실이 가득찼다. 제주국제공항은 제주로 들어오고 나가는 첫번째 관문으로, 하루 수만 명이 드나드는 곳여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철통 방어가 이뤄진다.

출발장엔 보안검색대 앞에서, 도착장엔 비행기에서 내린 뒤 짐을 찾기 전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발열체크가 이뤄진다. 출발장·도착장엔 모두 열화상카메라가 양쪽으로 2대씩 설치돼 있다. 카메라 앞엔 직원 3~4명 정도가 모여 앉아 모든 입도객의 발열 여부를 일일이 체크한다. 이날 국내선 출발장 보안검색대 앞 직원들은 열화상카메라를 지나가는 이용객들의 체온을 확인하느라 눈을

떼지 못했다. 카메라에 발열 증세가 나타나면 입도객은 5~10분 간격으로 3번 이상 체온을 측정하고, 37.5℃가 넘으면 공항에 설치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게 된다. 제주국제공항에 마련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도 추석 연휴 비상 근무를 이어간다.

제주 입도객들 중 발열 증세가 있는 내국인들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이동해 검체를 채취한다. 해외 입국자들은 예외없이 선별진료소로 이동한다. 이곳에선 간호사 3명, 인솔자 2명, 이송 1명·전산 1명 등 총 7명이 오전 6시부터 마지막 비행기가 도착

하는 오후 11시까지 근무 중이다. 선별진료소 직원들은 서귀포시 등 공항과 거리가 먼 지역 거주자들이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왔을 경우 이동편의를 위해 수송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공항 선별진료소 고순아 팀장은 “입도객들이 몰리는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 직원들도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양·음성 판정을 내리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도 추석 연휴 휴식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비상근

무조를 편성했다.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와 도내 6개 보건소, 7개 선별진료소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야간에도 대기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모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 발열 기준을 넘으면 공항 워크스루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부담으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올 상반기 검거된 ‘동네조폭’ 70명

전국 조폭 실태 분석 결과 대부분 ‘전과 21범’ 이상 소상공인 대상 범죄 최대

제주에서도 일명 ‘동네조폭’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검거된 동네조폭의 경우 초범은 없으며 전과 21범 이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돼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은 경찰청으로부터 동네 조폭 전과별·연령별 검거 인원, 주요 검거 사례 등을 분석한 자료를 28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붙잡힌 동네조폭은 모두 85명이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만 총 70명이 검거돼 지난 한 해 검거 인원에 육박하고 있다.

검거된 인원들은 대부분 상습 범 죄자였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전과

1~5범 2명, 전과 6~10범 8명, 전과 11~20범 26명, 전과 21~50범 43명, 전과 51범 이상이 6명이다. 초범은 없었다. 올 상반기 검거 인원도 절반 이상인 42명이 전과 21범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는 40~50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를 합쳐 50대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3명, 30대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60대와 20대가 각각 10명이었다.

범 죄 유형은 무전취식, 업무 방해, 폭력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 죄가 주를 이뤘다.

강다혜기자 dhkana@ihalla.com

제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 “오는 11월 총파업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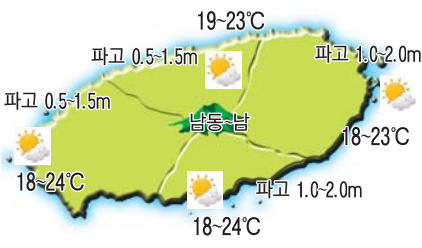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단체들이 공격 돌봄 확대, 단시간 근무 폐지,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에 반대하며 오는 11월 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중심 교육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당국에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으로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9일 화요일 음 8월 13일 (5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20%
0%	성산	20%
20%	고산	20%
0%	서귀포	20%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18/24℃
모레	구름 많음	18/24℃

구름 많음

제주도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19℃, 낮 최고 기온은 23-24℃로 예상된다. 중산간 이상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6:27	달뜨기 17:23
해질미 18:21	달지기 03:41
물때 만조 09:22	간조 03:51
22:00	15:45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경고	자외선지수 높음
----------	----------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제주지역 농업법인 위법사항 ‘수두룩’

시정·해산청구·농지처분명령 1618건 조치

제주도 포함해 전국의 농업법인 절반 가량이 유령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기된 6만6877개 농업법인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2만9964개소로 44.8%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은 미운영 중이거나 소재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농지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2만4265건에 이른다. 중복을 제외하면 1만8193개소(27.2%)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제주도 소재 농업법인 2950개에서 지난해 후속조치나 시정명령, 해산청구명령,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건수는 1618건에 이른다. 후속조치를 받은 687개소 가운데 운영하는 곳은 419곳(60.9%)에 머물렀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조합원 및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미충족해 시

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499건에 이른다. 또 비농업인 출자 제한, 사업범위 위반,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등 적발건수도 390건에 달한다. 이밖에 농지소유조건 위반 역시 42건으로 적지 않다.

이들 농업법인은 농업 이외에 숙박업이나 부동산매매 등으로 사업범위를 지키지 않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방역 OK, 도민 SAFE, 코로나19 OUT

제주형 방역으로 도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코로나19 조기 극복
선택과 집중 방역전략을 통한 청정제주·도민건강 사수

방향 및 세부 내용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한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 시설별 위험도 평가 기반 맞춤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발동
 - ※ 1차 : 8.24, 2차 : 9.2, 3차 : 9.11, 4차 : 9.23
 - 도·행정시·자치경찰 등 유관 부서·기관 간 다중밀집장소 방역관리 공동대응
- 코로나19 블루 퇴치 도민 심리방역 지원**
 - 도민 및 자가격리자 대상 24시간 심리지원 핫라인 시스템 유지
 - 도민 대상 심리 상담 등 심리방역 서비스 홍보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 피로 극복 유관부서별 힐링 서비스 발굴·실현
- 지역경제·방역 WIN-WIN 제주형 관광방역체계 구축**
 - 역학조사 효율성 위한 제주형 관광 방역 시스템 개발 및 기반 확립
 - 지역사회 확산 방지 관광사업체 방역 점검 등 현장 중심 관광방역관리
-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성공적 추진**
 - 국가 사업 및 도 자체 사업을 통한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 주소지 관계없는 접종장소 선택으로 편리성 강화, 2040세대 맞춤형 홍보
- 대국민, 대도민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화**
 - 온·오프라인 코로나19 정보 제공 수단 정리·다양화
 - 전도민 마스크 착용 캠페인 전개
- 제주형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통한 방역인력 확대**
 - 동네 거버넌스(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민간 자생단체 연계 취약계층 보호 (취약계층 집중보호 실행전략), 민관군 합동 일제소독·방역의 날 등 도민 주도형 방역 거버넌스 실현
- 감염병 취약지대 집중보호 프로세스 실현**
 - 재가 취약계층 등 감염병 취약계층 대상 민간 인적자원 연계 활동방역관리
 -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집단 발생 취약지대 고강도 집중 방역 관리
- 국경수준의 검역, 제주 공항만 워크스루와 특별일도절차**
 - 유입관문 공항만 발열체크→코로나19검사→자가격리 one-stop 관리체계 유지
 -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효율성·검역강화 상호 조화 가능 체계 진화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